



장흥 물축제 피서 인파

28일 오후 장흥읍 탐진강 둔치에서 열린 '제6회 장흥 물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주요 행사인 '지상 최대의 물싸움'에 참가. 물풍선과 물총 등을 이용해 서로에게 물을 쏘거나 끼얹으며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39분 해질 19시 38분 달돋이 23시 34분 달질 12시 27분

**장마 남하**  
무더운 가운데 비 내리는 곳 있겠다.

광주	비	25/31℃
목포	비	25/30℃
여수	비	25/31℃
나주	비	25/32℃
완도	비	26/32℃
구례	비	24/32℃
강진	비	25/32℃
해남	비	26/32℃
장흥	비	25/32℃
순천	비	24/30℃
영광	비	25/30℃
진도	비	26/31℃
전주	비	25/31℃
군산	비	24/30℃
남원	비	24/31℃
혁신도	비	23/29℃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불쾌지수  
경고 보통 매우높음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30(화)	31(수)	8/1(목)	2(금)	3(토)	4(일)
날씨	☔	☔	☔	☔	☀	☀
최저/최고	25/32	24/30	24/31	24/33	24/32	24/31

# “참전용사들의 희생정신 잊지 말아야”

## 국립대 공무원 직원 기성회비 수당 폐지 9월부터

“현재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60년 전 몸을 아끼지 않고 싸웠던 참전 용사들이 있었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육군 제 31보병사단과 광주지방보훈청이 지난 26일 '6·25 전쟁 전승 6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광주·전남 호국 문화행사에 참석한 참전 용사 유길성(85·광주시 남구 구동)씨는 '정전 60년'이 믿기지 않는 듯했다.

그는 6·25 당시 11사단 9연대 수색중대장으로 포화가 난무하는 전장을 누볐다. 육사 8기인 유씨는 당시 강원도 고성군 건봉산 지구 전투에서 적의 동태를 살피는 임무를 맡았다. 건봉산 208 고지의 경우 남·북 양측이 반드시 차지해야 할 군사적 요충지였다. 이 때문에 건봉산 고지 사수를 위한 북한군과의 치열한 전투도 1년 넘게 계속됐다.

유씨는 “매일 강원도 고성 건봉산 208 고지 주인이 바뀌는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고지를 오르는 1분이 1시간처럼 길게 느껴질 정도”라고 당시 기억을 끄집어냈다.

유씨는 “1953년 1월 21일 새벽 4시 정도였다. 부대원 15명과 기습 작전을 감행했다. 당시 적군 60명을 사살하고 초병 1명을 생포했다”고 회고했

### 6·25 참전 육사·학도병 출신의 '정전 60주년' 소회



유길성씨

11사단 9연대 수색중대장

고성 건봉산 208고지 점령

다. 그는 “고지 점령 후 부대 복귀 과정에서 매복 중이던 적 총탄에 부대원 3명을 잃었고 나도 왼쪽 눈·귀·다리를 다쳤다”며 아군측 희생도 뚜렷하게 기억해냈다. 그때 공로로 중무무공훈장·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오달면씨

고교 재학중 백마고지 투입

철원지역 사수 치열한 전투

그는 조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내걸고 싸웠던 만큼 정전 60주년을 맞는 감회도 남달랐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는 “6·25를 너무 모른다. 우리가 누리는 지금의 평화가 당시 목숨을 내걸었던 참전용사 등의

숭고한 희생 덕분임을 잊어서 안 된다”고 강조했다.

6·25 전쟁 중 학도병으로 참전한 오달면(79·광주시 서구 치평동)씨도 “전쟁의 참상을 잊지 말아야 평가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교 재학 중 1·4 후퇴 이후 군에 입대, 백마고지 전투에 투입됐다. 그는 포병 사격지휘병 임무를 맡아 비오듯 쏟아지는 포탄 세례 속에서 적군과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치열한 전투를 치렀던 당시를 회고했다.

그는 “7월 27일 정전 협정 직전까지 한 치의 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전투가 치열했다. 백마 고지만 하더라도 국군 병력이 매일 추가 투입됐는데, 살아 돌아가는 병력은 극히 일부였다”고 말했다.

오씨는 “1952년 10월 15일부터 10일간 백마고지 주인이 24번 바뀌었다. 이 치열한 전투 끝에 우리 군이 철원지역을 영토로 확보하게 됐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전 60년”을 맞아 그도 “지금 우리가 누리는 오늘의 평화가 60년 전 6·25 당시 목숨바쳐 나라를 지킨 이들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국립대가 기성회비에서 공무원 직원들에게 주는 수당이 오는 9월 폐지된다. 국립대 교원에게는 연구실적 성과에 따라 연구보조비가 차등 지급된다.

교육부는 최근 전국 국·공립대 총장회의를 열어 일반대 28곳, 교대 10곳, 전문대 1곳 등 39개 국립대에 9월부터 이같은 ‘기성회비 급여보조성 경비 개선방안’을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립대의 기성회는 학부보 보통회원과 기부자 특별회원으로 구성된 일종의 후원회로 1963년 도입돼 50년간 존속해왔다.

국립대들은 사립대 교직원과의 보수 격차를 줄이고 교직원의 교육·연구 성과를 높인다는 이유로 기성회 회계에서 성과 제고비, 교육훈련비 등의 명목으로 각종 수당을 교직원에게 지급해왔다.

/연합뉴스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모의수능 영어 B형 선택 75%로 감소

### 9월 평가 점수 결과...실제 수능선 60%대 하락 전망

대학수능능력시험을 두 달 앞둔 9월 모의평가에서 영어 B형(어려운 형태)을 선택한 비율이 처음으로 70%대로 떨어졌다.

3월 이후 영어 B형의 선택 비율이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어 실제 수능에서 60%대까지 내려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9월3일 실시하는 2014학년도 수능 모의평가 응시원서 접수율 최근 마감 결과, 전국적으로 64만여명이 지원했다고 28일 밝혔다.

영어 영역에서 쉬운 A형을 선택한 비율은 24.9%, 어려운 B형을 선택한 비율은 75.1%로 집계됐다. 선택형 수능으로 고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처음 치러진 3월 모의평가가 이후 영어 B형 선택 비율이 70%대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3월 시행된 수능평가 때 영어 B형 선택비율은

87.2%를 기록한 뒤, 6월 평가원의 모의평가 때는 82.3%로 내려갔고, 7월 인천시교육청 주관 수능평가 때 80.0%까지 떨어졌다.

입시 전문가들은 실제 수능에서는 9월 모의평가 때보다 더 많은 비율이 B형에서 A형으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영덕 대학협력개발연구소장은 “실제 수능에서는 영어 A형 선택 비율이 30%를 넘을 것으로 본다”며 “영어 A·B형 둘 다 허용하는 대학의 경우 영어 B형에 대한 비중이 30%를 넘지 않으면 A형이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9월 모의평가에서 국어 A·B형 선택비율은 각각 51.6%, 48.4%로 7월 인천시교육청 수능평가 때와 비슷했다. 수확은 70.0%, 30.0%로 7월과 비교하면 A형이 2.5% 포인트 늘고 B형은 그만큼 줄었다.

/연합뉴스

**잔여세대 분양중** **지리산 노블랜드**

산 좋고 물 좋은 **백운산 400고지**

콘도/팬션/별장/요양시설  
귀농자, 요양자 10%할인  
국유지 필요평수 임대 가능  
(산삼, 약초, 산나물, 텃밭 사용)  
화개장터, 쌈게사, 화염사, 노고단 근접

분양가격(공유면적 포함)	대출가능금액
18평(28실) 6840만원	18평 3000만원 가능
28평(26실) 1억 640만원	28평 5000만원 가능
56평(1실) 2억 1280만원	56평 1억원 가능

등기이전 및 상담 - 김주현 법무사  
H. 010-4451-6686 / 법무사 직접상담

**지리산노블랜드 분양 /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직통 : 010-3605-5000 / (주)오천경매

2013학년도 후기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추가모집**

입학문의 ▶ 062-605-1115

www.kwangshin.ac.kr

【주요일정】  
1. 일반전형  
① 원서접수 : 2013. 8. 5(월) - 8. 16(금)  
② 전형일 : 2013. 8. 20(화) 오전 10:00  
③ 합격자발표 : 2013. 8. 26(월) 오후 2:00  
④ 등록기간 : 2013. 8. 27(화) - 29(목)

▼대학원 과정별 모집정원 현황

대학원	과정	학과	모집정원	전공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	-
	석사	신학과(Th.M.)	○	구약, 신약, 조직, 기독교윤리, 역사, 설교예배, 선교, 목회상담, 주경
	석사	신학연구과(M.A.T.)	○	-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
교육대학원	석사	교육학과(M.Ed.)	○○	유아특수교육, 초등특수교육, 상담교육

정통보수신학의 요람  
59년 전통의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지사로 36